

언어와 매체 정답

35	①	36	④	37	④	38	⑤	39	④
40	①	41	⑤	42	⑤	43	⑤	44	②
45	③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의도] ‘안’ 부정문

‘그가 모기에 안 뜯기다.’의 ‘뜯기다’는 어근 ‘뜯-’과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된 피동사로 합성 동사가 아니다.

② ‘이 자동차가 안 값싸다.’의 ‘값싸다’는 명사 ‘값’과 동사 ‘싸다’가 결합된 합성어로, 합성어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③ ‘그가 약속 시간을 안 늦추다.’의 ‘늦추다’는 어근 ‘늦-’과 사동 접미사 ‘-추-’가 결합된 사동사로, 사동사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 때는 제약이 없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④ ‘보따리가 한 손으로 안 들리다.’의 ‘들리다’는 어근 ‘들-’과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된 피동사로, 피동사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 때는 제약이 없어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 ⑤ ‘할아버지 맥 마당이 안 드넓다.’의 ‘드넓다’는 접두사 ‘드-’와 형용사 ‘넓다’가 결합된 파생어로, 파생어를 서술어로 사용해 짧은 ‘안’ 부정문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문장이 된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에서 부정 부사 ‘아니’는 관형사 ‘여러’를 부정하고 있지만, ㉡에서 부정 부사 ‘아니’는 부사가 아닌 용언 ‘호리라’를 부정하고 있다.

① ㉠에서 보조 용언 ‘아니하다’는 용언 ‘노티(놓-+ -디)’를, ㉡에서 용언 ‘아니며’, ‘아닐씩’은 체언인 ‘들’, ‘세’를 부정하고 있다. ② ㉠에서는 보조 용언 ‘아니하다’가 평서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에서는 부정 부사 ‘아니’가 의문문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③ ㉠에서는 ‘노티 아니하다’의 긴 부정문이, ㉡에서는 ‘호리라’ 앞에 ‘아니’를 놓은 짧은 부정문이 사용되고 있다. ⑤ ㉠에서는 ‘묘법’이 둘이나 셋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고 있고, ㉡에서는 시름을 하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에 의한 부정이 나타나고 있다.

37. [출제의도] 국어의 음운 변동

‘겉웃’은 ‘겉’의 ‘ㄷ’이 ‘ㄷ’으로 바뀐 후 실질 형태소인 ‘웃’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되고, ‘웃’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기 때문에 [거둔]으로 발음된다. ‘국밥만’은 ‘밥’의 첫소리 ‘ㅂ’이 ‘ㄱ’ 뒤에서 발음되기에 ‘ㅃ’으로 발음(㉢)되고, ‘밥’의 중성 ‘ㅂ’이 ‘ㄱ’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국빡만]으로 발음된다. 파생어인 ‘백분율’은 ‘분’의 ‘ㅂ’이 ‘ㄱ’ 뒤에서 발음되기에 ‘ㅃ’으로 발음(㉤)되고, ‘울’ 앞에 오는 단어의 끝자음이기에 때문에 [늘]로 발음(㉥)되므로 [백뽀늘]로 발음된다. 합성어인 ‘색연필’은 ‘연’ 앞에 오는 단어의 끝자음이기에 때문에 [년]으로 발음(㉦)되며, ‘색’의 ‘ㄱ’이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생년필]로 발음된다. 파생어인 ‘헛일’은 ‘일’ 앞에 오는 단어의 끝자음이기에 때문에 [닐]로 발음(㉨)되고, ‘헛’의 ‘ㅅ’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데, 이때 ‘ㄷ’은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므로 [헛닐]로 발음된다.

38. [출제의도] 형태에 관한 조항 - 제27항

‘새-, 셋-, 사-, 셋-’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어두음과 첫음절의 모음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는데,

‘새-, 사-’는 어두음이 ‘된소리, 거센소리, ㅎ’일 때 사용하고, ‘셋-, 셋-’은 어두음이 ‘ㄴ, ㄹ’과 같은 울림소리일 때 사용한다. 또한 ‘새-, 셋-’은 결합하는 형용사의 첫음절의 모음이 ‘ㅏ, ㅑ’와 같은 양성 모음일 때 사용하고, ‘사-, 셋-’은 ‘ㅓ, ㅕ’와 같은 음성 모음일 때 사용한다.

39. [출제의도] 형태에 관한 조항 - 제35, 38항

한글 맞춤법 제38항에 의하여 ‘보이어’는 ‘보-’ 뒤에 ‘-이어’가 어울려 ‘뵤어’ 또는 ‘뵤여’로 줄어들 수 있다.

① ‘뵤었다’는 ‘뵤-’에 ‘-았-’이 어울려 ‘뵤다’로 줄어들 수 있다. ② ‘뵤었다’는 ‘뵤-’에 ‘-었-’이 어울려 ‘뵤다’로 줄어들 수 있다. ③ ‘뵤어’는 ‘뵤-’에 ‘-어’가 어울려 ‘뵤’로 줄어들 수 있다. ⑤ ‘트이어’는 ‘트-’ 뒤에 ‘-이어’가 어울려 ‘티어’ 또는 ‘트여’로 줄어들 수 있다.

40. [출제의도] 정보 구성 언어

(가)는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문자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라디오 대담으로 음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작을 알리는 음악’과 ‘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지는 음악’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는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정보 제공 방식이 선조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비순차적인 검색을 허용한다. ③ (나)는 대담을 진행하다가 ‘시내에 통제되는 ~ 바랍니다’는 교통 안내 방송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성을 지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청취자의 질문을 문자 메시지나 방송국 앱을 통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방향의 소통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 양상을 보인다. ⑤ (나)는 라디오 방송 대담이기 때문에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다.

41.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가)의 ‘라일락’님이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편집함.’에서 최종적으로 문서가 작성·편집된 이력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다른 수용자들의 문서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정보 수용자가 문서의 내용 중 원하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목차’가 제시되어 있다. ② 정보 수용자가 웹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는 ‘외부 링크’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③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 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문서는 여러분이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와 ‘[편집]’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④ 사용자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은 정보 생산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할 때 근거로 삼은 자료의 출처를 ‘참고 자료’ 항목에서 밝히고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나)의 전문가는 연결 어미 ‘-면서’를 사용하여 스마트 가로등이 공유키 역할을 하는 것과 소음 수준과 공기 오염도를 분석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① 진행자는 의존 명사 ‘대로’를 사용하여 청취자에게 예고한 바와 같이 스마트 시티가 대담의 주제임을 밝히고 있다. ② 전문가는 부사격 조사 ‘예’를 사용하여 센서 신호를 받는 대상이 ‘수거 차량’임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전문가는 피동사 ‘모이다’를 사용하여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행위의 대상인 ‘데이터’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다. ④ 전문가는 지시 대명사 ‘그것’을 사용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상인 ‘태양광 전지판’을 가리키고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댓글 3은 ‘저처럼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었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특정 관심사를 지닌 청취자들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댓글 2와 댓글 3 모두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① 댓글 1은 ‘보고서를 찾아보’었다는 점에서 추가로 탐색 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소규모 도시에는 스마트 시티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스마트 시티의 기술들이 현재 많은 도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언급이 사실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② 댓글 2는 ‘클라우드라는 개념도 낯설어서 알고 싶었는데’라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대담에서 다루고 있지 않았음을 언급한 후 ‘그 뜻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며 질문의 형식으로 답변을 요청하고 있다. ③ 댓글 3은 ‘얼마만큼의 전력을 절약했는지 알 수 없어 막연하’다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댓글 1은 ‘도시 간 불균형 문제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을, 댓글 2는 ‘보안 문제도 있는데 너무 좋은 점만 드러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담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가)의 첫 번째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통해 10대에서 20대까지는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거북목 증후군 환자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30대부터 60대까지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 중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대비되는 그림 자료를 제시하여 정상목과 거북목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③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거북목 증후군의 증상에 대한 글과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친구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올바르게 앉은 자세’, ‘휴식 시간’, ‘스트레칭’의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중요한 정보를 부각하고 있다. ⑤ 모든 슬라이드에서는 각 슬라이드의 중심 내용을 항목화하여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정보 전달과 설득

(나)에서 한비는 ‘거북목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계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수정한 슬라이드에는 3단계 척도가 아닌 ‘예, 아니요’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유준이 ‘세 번째 슬라이드의 제목이 소제목의 내용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슬라이드의 제목을 ‘거북목 증후군 진단 방법 및 예방법’으로 수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유준이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어떨’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거북목 증후군 증상을 도식화하여 제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한비가 ‘두 번째 슬라이드와 형식적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거북목 증후군 예방법의 내용도 번호를 붙여 제시하’자고 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순서 번호를 추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세현이 ‘올바른 자세에 대한 시각 자료도 추가하’자고 한 것을 바탕으로 수정한 슬라이드에 시각 자료를 추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